

海東歌註









列聖御製

麟平大君

積城君

朗原君

李禧

鄭夢周

孟思誠

金宗瑞

成三問

朴彭年

王邦行

漁夫歌

徐敬德

朴英

李彦迪

曹植

洪暹

李焜

宋純

宋寅

李後白

李陽元

金玄成

鄭澈

李珥

徐<sub>立</sub>

洪迪

李德馨

李恒福

林悌

李濟臣

柳自新

申欽

李廷龜

趙續韓

權<sub>立</sub> 韓

李安訥

金<sub>立</sub> 澄

洪瑞鳳

李舜臣

金尚憲

趙存性

真伊

紅粧

笑春風

小相舟

寒雨

尤之

松伊

樸花

多福

朴明賢

林晉

金應鼎

李仲集

金光煜

具仁虛

鄭太和

蔡裕後

尹善道

鄭斗卿

姜栢年

曹漢英

金<sub>立</sub> 堉

李沆

李華鎮

李貴鎮

許珽

宋時烈

南九萬

李澤

柳赫然

朴泰輔

具志積

金聲竄

申靖夏

金昌集

儒川君

尹斗緒

俞崇



李廷燮

朴仁老

張炫

朱義植

金三賢

許糧

金裕器

金聖器

趙顯命

李在

李潯

尹游

尹淳

趙明履

李鼎輔

金天澤

金壽長

里隱金大有時模贈老歌齋

感君恩調

八耄衰翁際

聖時君歌擊壤我吟詩逍遙又值鶯花

節涵詠均蒙雨露私陋巷簞瓢貧匪病佳辰杖屨老猶

奇戴克但切華封悃拜祝彤墀萬歲期

各歌體容如此以唱豈不快哉

海外絕域山川異別

轅門高開長揖天子

潔如明鏡星河澄徹

鉄馬長駟踏破層冰

隋堤春暮楊花如雪

邊日色苦羌笛聲悲

碧海長天萬里飛楫

黃石六韜卧龍八陣

六合雲慘陰霧晦昧

清水芙蓉天然去飾

太宇天光照耀柳

李所學釣得傍聽

滄海任傾六鰲驚怯  
內無智略外飾粉華  
光彩炫耀山容竒絕  
華陽道士打點黃庭  
金弓玉矢比物無用  
敦海牧羊節旄零落  
白雪長天萬樹無拜  
偃蹇丈夫醉顏濛濃  
潁川洗耳岩畔棄瓢  
月色三更寒猿哀鳴  
香爐翠積銀瀑噴珠

丁亥春正月老歌齋七八翁金壽長書

捕風捉影適甲莊身  
清音盤空白雲自過  
不入直路足跡險阻  
龍門九河砥柱屹立  
春山枯竹杜鵑啼血  
井底之蛙安知天濶  
罷釣歸來雪迢迢  
杏壇琴瑟律呂調陽  
殘花秋水落珮灩澦  
爰居野處採山釣水  
白色蟬梅水輪皓光



海東歌謠

初中大葉 南薰五絃行雲流水

오날이오날이쇼셔 每日에오날이쇼셔 점그지도시지  
도마르시고시나 晝夜長常에오날이쇼셔

二中大葉 海濶孤帆平川挾灘

임아楚人사름들아비님금이어티간이六里靑山이뉘  
셔히되단말고우리도武関다든後니消息물나흐노  
라

三中大葉 項羽躍馬高山旋石

浮虛코성셔올손암마도西楚霸王깃동天下야어드나  
못어드나千里馬絶代佳人을놀을죽고나건이

北殿 鴈叫霜天草裡驚蛇

누은들잠이오며기들인들님이오라이제누어신들이  
니잠이하마오리출하로안즌곳에선긴밤이나새오자

二北殿 聖閨火婦哀怨悽愴

○ 不내黃毛試筆墨을로 空의지니고이제드라



면엇어올法잇것마는아  
이라

初數大葉

長袖善舞細柳春風

어저내일이여그릴של을모르든가이시라호드면가라  
마는제구트여보내고그리는情을나도몰나호느라

二數大葉

杏壇說法雨順風調

列聖御製

太宗

이런들엇더호며저런들엇더호며萬壽山드령축이얼  
거진들귀엇더리우리도이곳치얼거져百年스지늘이  
리라

成宗

이시럼브디갈싸안이가은못할손야無端이슬튼야남  
의말을들엇는아그려도호애드려라가는뜻을날리리

孝宗

靑江에의뜻는소된의덕이사유은은의端山紅雲에위



드르며 웃는고야 두어라 春風이 났날에 리우음의

어라

○ 靑石嶺 지나거야 草河溝 1 어드리오 胡風도 춤도 출야  
구즈비는 드스일고 뉘라셔내 行色그려내야 남저신디  
들일고

朝天踰보의 닷말가 玉河関이 뵈닷말가 大明崇禎이 어  
드리로가시건고 三百年事大誠信이 심이런가호느라  
너도兄弟로고 우리도兄弟로다 兄友弟恭은 브를서시  
업건이와너희는 與天地無窮이니 그를부러호느라  
앗가야사름되랴온에짓치듯쳐 九萬里長天에프드득  
소사올나 남저신 九重宮闕에 급어블사호느라

肅宗

秋水는天一色이오 龍舸는泛中流 1 라 簫鼓一聲에解  
萬古之愁芳로다 우리도萬民다리고 同樂昇平호리라

麗末

李

穡

字穎叔 號菴 恭愍朝門下侍中



白雪이 저 자진 끝에 구름아 더스레 라 만가 온梅花는 어  
니 곳에 피엿는 그夕陽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나 하느라

鄭夢周

字達可 號圃隱 恭愍朝門下侍中

이 몸이 죽어 죽어 一百番 그쳐 죽어白骨塵土되야 님시  
라도 잊고 업고 님向空一片丹心이야가 실솔이 이시라

麗史曰

太宗設宴邀致鄭夢周至酒闌

太宗把

盃作歌以觀夢周之意夢周作以歌以和 太宗知其終不寢也

孟思誠

字誠之 號東浦 前朝魁科

入我朝至左相

江湖에 봄이 든이 밋친興이 절노난다 濁醪溪邊에 錦鱗  
魚 1安酒 1로다 이 몸이閑暇히 옴도亦君恩이 샅다

江湖에 여름이 든이 草堂에 일이 업다 有信江波는 보  
내는이 브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히 옴도亦君恩이 샅다  
江湖에 가을이 든이 그기마다 슬져 잇다 小艇에 그물 싣  
고 흘리 띄여 더적득 그消日히 옴도亦君恩이 샅다

江朝에 月을 싣고 더적득 그消日히 옴도亦君恩이 샅다



繹으로와슬삼프이몸에찬자언암로亦君恩이

本朝

金宗瑞

字

號節齋

太宗朝官至領相

朔風은나모곳티불고明月은늘속에초디萬里邊城에  
一長鉤집고셔셔긴크람근호소리예거칠셔사업세라  
長白山에旗를곳고頭滿江에물씻기너서근적셔비야  
우리안이스나희나엇덜라凌烟閣畫像을우리몬적하  
리리

成三問

字謹甫號梅竹堂

世宗朝官至承旨

首陽山보라보며夷齊를恨호느라줄러죽을인들抹薇  
도호는것가암을이푸새엇거신들괴워히나던이  
이몸이죽어가셔무어시될고호니蓬萊山第一峯에落  
長松되얏다가白雪이滿乾坤호니獨也青호리  
朴彭年 字仁叟號醉軒世宗朝官至叅判  
가마피는비마자희는듯검호리라夜明光月이밤이  
어부오라남向호一片丹心이

王邦衍 字

三原縣金吾郎

千萬里 언 언 길히 고온 님여 희웁고 내 마음 들 띄어  
벗의 안자 잇다 저 물드내 안 못 여 울어 밤길 데 못다

漁父歌

失名

이中에 시름 업슨 이 漁父의生涯로다 一葉扁舟를 萬  
頃波에 띄여 두고 人世를 다니젓거니 날가는 줄안가  
굽어는 千尋綠水로 본이 萬疊靑山 十丈紅塵이 언대  
나 못 려는고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옥 無心하여라

靑荷에 밤치고 綠柳에 고기예여 蘆荻花 薈에 비미야 두  
고 一般淸意味를 언의 분이 아르실고

山頭에 聞雲이 起하고 水中에 白鷗飛라 無心코多情호  
이이득것시로다 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좃차노로리  
라

長安을 도라본이 北闕이 千里로다 漁舟에 坐엇신들니  
존적이 실손아 두어라 버시름아 濟世賢이 업스라

右 漁父歌 兩篇 不知爲誰作 余自退老田間心



閒無事。竊集古人餽詞。問可。詩文。若于首。教。既。如。  
偉時。聽而消遣。兒孫輩。晚得此歌。而求示余。觀其  
詞語。閒適。意味深遠。吟咏之餘。使人有晚略功名。飄  
。遐舉塵外之意。得此之後。盡棄其前所玩悅歌詞。  
而專意于此。手自謄丹花朝月夕把酒呼朋。使詠於  
汾江小艇之上。興味尤真。疊。忘倦。第以語多不倫。  
或重疊。必其傳寫之訛。此非聖賢經據之文。妄加撰  
改。一篇十二章去三為九。作長歌而詠焉。一篇十章  
約作短歌五闕為業。而唱之。合成一部新曲。非徒刪  
改添補處亦多。然亦各目舊文本意。而增損之名曰  
聾岩野錄。覽者幸勿以僭越咎我。也。時嘉靖己酉夏  
六月流頭後三日。雪鬢翁聾岩主人書于汾江漁艇  
之舷。

世所傳漁父詞。集古人漁父之詠。間綴以俗語。而為  
之長言者。凡十二章。而作者名姓無聞焉。往者安東  
府有老妓能唱此歌詞。叔父松岡先生時召此妓使

歌之以助壽席之歡。況時尚少心竊嘉之。錄得其聚而極  
恨其未為全調也。厥後存沒推遷。舊聲杳不可追。而身墜  
紅塵。益遠於江湖之樂。則思欲更聞此詞。以寓興而忘憂。  
也在京師。遊蓮亭。常編問而歷訪之。雖老伶韻倡。莫有能  
解此詞者。以是知其好之者鮮矣。頃歲有密陽朴浚者。名  
知衆音。凡係東方之樂。或雅或俗。靡不裒集為一部書。刊  
行于世。此詞與霜花店諸曲混載其中。然人之聽之於彼。  
則手舞足蹈於此。則倦而思睡者。何哉。非其人固不知其  
音又焉知其樂乎。惟我輩若李先生年踰七十。即投絃高。  
厲退閒於汾水之曲。屢召不起。等富貴於浮雲。寄雅懷於  
物外。常以小舟短棹。嘯傲於烟波之裡。徘徊於釣石之上。  
押鵝而忘機。觀魚而知樂。則其於江湖之樂。可謂得其真  
矣。佐郎黃君仲舉於先生親且厚。美常於朴浚書中。取此  
詞。又得短歌之漁父。作者十闋。並以為獻。先生得而玩之。  
喜陟其素尚。而猶病其未免冗長也。於是刪改補換。約十  
二為九。約其為五。而付之時。親贈而收之。每遇佳賓。必



憑水樓而對烟舫。使數舟並鳴。而謂其職。而謂其職。人望之若神仙人焉。噫先生之於此。既得其真。樂宜好其真聲。豈若世俗之人。悅鄭衛而增淫聞。玉樹而蕩志者。此耶先生常手寫此本。不辱下示。且責以跋語。滉身效韓駒盟寒沙島。何敢語江湖之樂論。漁釣之事。予辭之。至具而命之不置。不獲已。謹書所感於其尾。以塞勤命之萬一。東坡所譏。以朝市眷戀之徒。而山林獨往之語。滉之謂矣。是歲。曉日既望。豐基守李滉拜手敬書于郡齋。

徐敬德

字可久 號花潭

中宗朝授職

只음이어린後一니호는일이다어리다萬重雲山에어  
니님올이만은지는남부든남람에幸혀진가호노라

朴英

字子實 號松堂

中宗朝武科官至吏參

瞻彼淇澳。猗猗綠竹。猗猗。로다有斐君子。여남머를별  
이럼은우리도至善明德을다가블여호노라

李彦迪

字復古 號晦齋

中宗朝官至贊成

天覆地載。萬物之母。로다父生母育。호니이

의天地로다 이天地저天地 주음에 음을 뒤를 모르리라

曹

植

字捷仲歸南漢

中宗朝以遺逸累拜不就

頭流山兩端水を비듯고 이제보니桃花든물은물에山影조차점것씨라 아희야武陵이어디오나는연가하노라

三冬에 비웃넘고巖穴에 눈비맛자구름인 벗뒤도 쥔 격이 엄것만은西山에히지다 하니 눈물계워하노라

洪

暹

字退之號忍齋

中宗朝官至領相

玉을돌이라 하니 글여도 이다래라 博物君子는 안은 법 잇것만은 알고도 모르는 처 하니 글을슬허하노라

李

滉

字景浩號退溪

中宗朝官至貳相

일언들엇더 하며 절언들엇더 하료 草野愚生이 일엇타 엇더하료 하물며 泉石膏肓을 못쳐 못습하료

烟霞로 집을삼고 風月로 벗을삼아 太平聖代에 病을오 늙어가니 이中에 브라는 일스힘을이나 업고져

淳風이 후한하야 貞實한 節義를 지니고 生애 賢을 好하거



眞寶로알함말이 天丁에許多英기를속여말함말  
幽蘭이在谷함이自然이듯치조희白雲이在山함이自  
然이보지조희이中에彼美一人을더옥낫지못함여  
山前에有臺함고臺下에有水一로다세만흔글먹이은  
음영감영함거든엇더다皎々白駒는머리마음함는이  
春風에花滿山함고秋夜에月滿臺라四時佳興이사름  
파함가지라함글며鳶飛魚躍雲影天光이야언의곳이  
이실이

天雲臺도라들어玩樂齋蕭灑함디萬卷生涯로樂事一  
無窮함여라이中에往來風流를닐러므음함고  
雷霆이破山함여도聾者는못듯는이白日이中天함여  
도聾者는못본이은우리는耳目聰明男子로聾聵로치  
말로리라

古人도날못보고나도古人못배古人을못봐도네던길  
알피잇네네던길알피잇거든안이네고엇절고  
當時에네던길흔멏히를만겨두고어디가드나다가

제야돌아온고이제야돌아온아니년되므음말로리  
靑山은엇제하여萬古에뜨르르며流水엇제하여晝夜  
에긋지안이는고우리드긋치지말나萬古靑靑하리리  
愚夫도알며하건이괴안이쉬온가聖人도못다하신이  
괴안이어려운가쉽거나어렵서나中에늬는줄을몰너  
리

右陶山十二曲者陶山老人之所作也老人之作此  
何爲也哉吾東方歌曲大抵吾多淫哇不足言如翰  
林別曲之類出於文人之口而矜豪放蕩兼以褻慢  
戲狎尤非君子所宜尚惟近世有李鼈六歌者世所  
盛傳猶爲彼善於此亦惜哉其有玩世不恭之意而  
少溫柔敦厚之實也老人素不解音律而猶知厭聞  
世俗之樂閒居養疾之餘凡有感於情性者每發於  
詩然今之詩異於古之詩可詠而不可歌也如欲歌  
之必綴以俚俗之語蓋國俗音節所不得不然也故  
李路敦等歟而郭萬獨私六曲者仁爲其一言志俱



言學欲傲師輩朝知習不歌者得焉其年未全  
兒輩自歌而自舞蹈之座幾可以蕩滌鄙吝感發融  
通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者蓋焉顧自以蹤跡頗  
乖若以等閒事目以卷起鬧端未可知也又未信其  
以入腔調偕音節與未也姑寫一件藏之篋笥時取  
玩以自省又以待他日覽者之去取云爾嘉靖四十  
四年乙丑暮春既望山老書

宋

純

字

辨倪仰亭

中宗朝官至判中樞

風霜이 첫겨친날에 못피은黃菊花를金盃에 못담아  
玉堂에 보내오니桃李야 꽃이 온새말아 님의 뜻을알과  
라

宋

寅

字明仲錦順菴

中宗朝駙馬礪城尉

이성적성하니일은일이므스일고흐롱하롱하니歲月  
이거의로다두어라已矣已矣연이안이늘고어이리  
들은말即時닛고본일도못본드시네人事이러흐애늠  
의是非모를느다다만지손이성흔이흐잡기만안으니

百  
호달설은날에 蠶을안이 노왔느라 풀病도안이 들고 입  
덧도안이 난다 두어라 病업슨덧으란 長醉不醒호리라  
李後白 字李真號青蓮 明宗朝官至判書  
蒼梧山聖帝魂이 구름쫓차 瀟湘江에 내려 夜半에 흘러  
들어 竹間雨 되온 뜻은 二妃의 千年淚痕을 못내 써서 흠  
이라

李陽元 字伯春號鷺渚 明宗朝官至領相

금호나금흔남과날 勸호여올녀두고이보오벗님비야  
흔드지나말으되여죽기는 設지안이되님못볼가호느  
라

金玄成 字餘慶號南窓 明宗朝官至同敦寧

樂只자오날이여즐어온자수대이여즐어온오날이형  
허안이점들세라 每日에오늘갓틈연모시슴름잇시리

鄭澈 字李涵號松江 明宗朝官至左相

님금과百姓갓스이하늘과다히크되나의설은일을다

말오녀호이어트운이들



어버이사랏신제섬길일란다 하여라 지나간後 1면이  
똥다 엇지 할리平生에 못쳐 못할일이잇분인가 하노라  
네아들孝經 읽든 이어드록 비화는이네아들小學은모  
리면 못출노다 어니 제이 두글비화어질거든 불연요  
예셔나리틀들어 두세번만 빗츠면은蓬萊山第一峯에  
고온님불연만은 하다가 못하는일을닐러무슴하리  
이몸혈어니여벳물에 석오고적이 물이올어네여漢江  
여흘되다 흠연그제야넘그린내病이歇할法도잇는어  
興스이數 1 업손이帶方城이秋草 1로다나모른진안  
일란牧童笛에 빗쳐두고이 초흔太平烟花에 흠스되  
엇더리

南極老人星이息影亭에 빗쳐여셔滄海桑田이슬크장  
뒤눕도록가지록새빗출내야금을뉘틀물은다  
青天글름빛기눔피엿는霍일런이人間이쫓든아무슴  
무라나려온다長젓치다셔러지도록놀아갈줄모르는

다

長장짓치다 지게야 나래를 못쳐 들어 靑天青天 구름속에 소음

새울른말이 식현고 현출출 세계를다 시보고 말와라

新院新院主主1 되야 별손님 지내옵니가 건이 오건이 人事

드하도 할싸 안자셔보느라 하니 受苦受苦로와하느라

新院新院主主1 되야 되롱삿갓메오이고 細雨細雨斜風斜風에 一竿

竹竹빛기들어 紅蓼紅蓼花花白蘋白蘋洲洲渚渚에 음영감영하느라

新院新院主主1 되야 紫扉紫扉를 못쳐닫고 流水流水靑山靑山을 벗삼아

더젓느라 아희야 碧蹄碧蹄에 손이라 거든 날나가 다닐러라

비 樣姿樣姿남만 못하줄나도 暫間暫間알건만은 臆暗臆暗도 보려잇

고 粉粉새도 안이 미미이러코 피실사 뜻은 전혀 안이 먹느

라

남으도 病病이 든이 亭亭主主1 라고 쉬리업다 豪華豪華히섯신제

는 올이 같이다 쉬던이 남지고 柯枝柯枝적은後後1 너새도 안

이 온다



中書堂白玉杯를十年만에 다시본이롭고 흰빛촌테론  
듯하다 만은엇덧타 사람의 마음은朝夕變을할다

재념어成勸農집의술너덧말어제듯그는요발노박  
차언치노화지슬트고아희야네勸農제신야鄭座首와  
다슬와라

어화棟樑材를절이하여너흐고헐뜨더기운집의議  
論도흐도하다못지위庫子자만들고헵뜨다가말렸는  
다

風波에일어든그빅어드러로가닷말고구름이어흘거  
든처음에날썰어서허흠헌비갓인스비는모다操心하  
시소

적으섯는적소나무섬도별사갈의가적은듯들리혀  
적글형에셔고라자스씩고刀切분비는다직을여하  
는이

목을사들아올흔일하사스라사람이되여너셔올지

吳文正公口占詩卷之四

右松江相國鄭文靖公之所著也公詩詞清新警拔  
固膾炙人口而歌曲尤妙絕今古長篇短什無不盛  
傳雖屈平之楚騷子瞻之詞賦殆無以過之每听其  
引喉高咏聲韻清楚意旨超忽不覺其飄乎如憑虛  
而御風羽化而登仙至其愛君憂國之誠則亦且藹  
然於辭語之表至使人感愴而興歎焉苟非出天忠  
義間世風流其孰能與於此噫公以耿介之性正直  
之行而適會黨議大興譏搆肆行上而得罪於君父  
下以見嫉於同朝流離竄謫幾每死幸全而其所詬  
罵至身後彌甚昔子瞻之遭罹世祲亦可謂楚矣愛  
君篇什猶能見賞於九重而公則並與此而終不能  
上撤抑何其不幸之甚歟清陰金文正公賞論公始  
末而比之於左徒之忠此誠至言哉世間固有公歌  
曲之刊行者而顧年代已久且經兵燹遂失其傳誠



曲之刊行者而顧年已久且經六變遂失其傳誠  
新增竄改不特誤明世耳目且其言詞

置諸案頭時一誦誦其於排遣不為無助蓋亦借擬

於朱夫子楚辭集註之遺意云爾時庚子元月上澣

完山後人李選書于車城之幽蘭軒

李

珥

字叔猷號栗谷

明宗朝官至貴成

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르든이誅茅卜居함이 번남니  
다오신다어좁어武夷를想象하구學朱子를하리라

高山九曲潭世人曾未知誅茅未卜居朋友皆會之

武夷仍想象所願學朱子

尤菴

五百天鍾地炳灵栗翁資稟粹而清高山九曲幽深

處汨滯寒流點瑟聲

尤菴

一曲은어드미고寇岩에히빚친다平蕪에거거든이遠  
山그림이로다松間에綠樽을극고빚은은양브느라

一曲何處是寇岩日色照平蕪烟歛後遠山真如畫

松間置綠樽延佇友人來

尤菴

一曲松間漾玉船寇巖初日暎前川携筇坐待佳朋

：至遠宙平燕卷曙烟

文 谷

二曲은 어드미고 花巖에 春晚카다 碧波에 긋출되 위 野  
外로 보어느라 사름이 勝地를 모로니 알기 흐들었더니

二曲 何處是 花巖 春景晚 碧波泛山 花野外 流出去

勝地 人不知 使人知 如何

尤 卷

二曲 仙巖花 映峯碧 溪流 水漾 春容落 紅鮮 使漁郎

識休說 林源 屬萬重

霽月堂

三曲은 어드미고 翠屏에 넉퍼 져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

其音 亨는 적의 盤松이 日름을 맞은 이 日름景이 업시라

三曲 何處是 翠屏 葉已敷 綠樹有 山鳥 下上 其音時

盤松受 清風 頓無 夏炎熱

尤 卷

三曲 曾聞咏 壑艇上 游移 擢問 何年 山禽 鮮說 滄桑

事 下上 其音正可憐

文 巖

四曲은 어드미고 松崖에 히 넘거다 潭心 巖影은 온갓 빛  
치 石갓에 라 林泉이 집드록 조흔이 興을 起워 亨느라



四曲松崖萬丈巖日斜林影翠氈  
處雲白山青集一潭  
怡情正在幽溪  
睡村

五曲은어드미고隱屏이브기호히水邊精舍는瀟灑宮  
도마이업다이에講學도호런이와詠月咏風호오리  
라

五曲何處是隱屏最好看水邊精舍在瀟灑意無極  
箇中嘗講學詠月且吟風  
尤菴

五曲雲烟深復深武夷精舍此山林翛然杖屨清溪  
上誰會吟風詠月心  
谷雲

六曲은어드미고釣峽에물이넉다나와고기와뉘야더  
욱줍이는고黃昏에나더를이고帶月歸를호노라

六曲何處是釣峽水邊澗不知人與魚其樂孰為多  
黃昏荷竹竿聊且帶月歸  
尤菴

六曲春溪釣綠灣歸時溪月照松關濠梁上下天機  
活魚我相忘果孰間  
三淵

七曲은 어드미고 楓巖에秋色이 쏘타 淸霜이 얹게 된 이  
絶壁이 錦繡으로 다 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닛고 잇노  
라

七曲何處是楓巖秋色鮮清霜薄言打絕壁真錦綉  
寒岩獨坐時聊示且忘家

七曲楓巖倒碧灘  
錦屏秋色鏡中看  
悠然獨坐忘歸路  
一任霜風拂面寒

八曲은어드미고琴灘에들이름다玉軀金徽로數三曲을노른말이古調를아리업슨이훈자죽여호노라

八曲何處是琴灘月正明王軒典金徽聊奏數三曲  
古調無知者何妨獨自樂

八曲溪山何處開  
琴灘終日好  
泓洄牙絃欲奏無人識  
獨帶青天霽月來

芝村

九曲은어드리고文山에歲暮커다  
奇岩恠石이눈속에  
못져리라遊人은옷이안이흐고  
불것업다하더라



述月自來言言無休  
九曲文山雪皓然奇形掩畫田山川遊人謾說無佳  
景未肯窮尋此洞天

宋疇錫

### 高山九曲潭記

栗谷先生於余弱冠師友也公既為世大儒尊用於  
朝不幸未究卒今二十五年矣顧余一無用物耳老  
而不死適與公子景臨生遇於西京俯仰世故談不  
足而涕有餘生乃請叅記公故居海之高山九曲潭  
者余自公卜地之初佩銅鄰縣還往實熟所謂九曲  
潭者未嘗不在夢想之中浪據生揭別其次而述曰  
第一曲為冠巖雄州城西洞四十五里其距海門二  
十里山頭有立石若冠焉者而卓然故以名意亦取  
夫冠始之義予自此而注山勢逶迤漢水並之而其  
陡絕處下必澄潭足為隱者之所盤旋蓋有山邛數  
家始見焉第二曲為花巖自冠巖五里許岩壑石罅  
皆花如山榴者輩土故名後面山村可十餘家第三

曲為翠屏自花巖三四里許巖逾奇而翠圍如屏狀故名屏前小野洞中人農馬野中有盤松一蓋下可坐數百人屏北土人安氏家為第四曲為松崖自翠屏三四里許石壁千尺其上松林翳日故名潭心有石半露船形者曰船巖上可坐八人土人朴氏對而家焉蓋從公入洞也第五曲為隱屏自松崖二三里許石峯高圓明麗特異潭邊底皆若砌而貯之水者屏之義視前而隱又近取諸身以托退休之義乎公始即石潭居之略為棲息之所而從學益衆則相與謀為可以用處規設益備則尊兄患後不可一少是有隱屏精舍而附麗精舍次第以成者如于具為宜各小記而邂逅之頃有所不暇也若釣溪者自隱屏三四里許枕溪之岩多是自在釣漁磯故名而曲之第六曲者也若楓岩者自釣漁二三里許岩皆楓林被之霜後絢如霞蔚故名而曲之第七曲也下有數

石半露船形者曰船巖上可坐八人土人朴氏對而家焉蓋從公入洞也第五曲為隱屏自松崖二三里許石峯高圓明麗特異潭邊底皆若砌而貯之水者屏之義視前而隱又近取諸身以托退休之義乎公始即石潭居之略為棲息之所而從學益衆則相與謀為可以用處規設益備則尊兄患後不可一少是有隱屏精舍而附麗精舍次第以成者如于具為宜各小記而邂逅之頃有所不暇也若釣溪者自隱屏三四里許枕溪之岩多是自在釣漁磯故名而曲之第六曲者也若楓岩者自釣漁二三里許岩皆楓林被之霜後絢如霞蔚故名而曲之第七曲也下有數



曰名而已爲第九曲終焉公存也人爲地之灵文不在茲乎且九者龍德之數也余少也知公之少字案應九二而小山舊名偶符斯文于是而不曰造物者未是不具於其間則未信也朱子居閩之武夷山則有九曲洞天公居海之高山則有九曲宕川豈東南萬里吾道一氣脉自相貫通而然歟若夫壬辰兵戈以來公家受秋涼憐而山林水石且不免焉則於國運奈何乎余之知公非故聞風而興者也然旣九原不可作得觴咏於九曲之清流而獨學文字爲公發之可以招徠精矣於九曲之陳迹然且遠焉不能蒞歸而昇之景臨生歸書于簷楣之間愴哉崔豈記

徐

益

字君受號萬竹亭

宣廟朝官至牧使

이외 흠헐러야져바다 흠메오면은蓬萊고온님을겉  
어가도블렀만은이몸이精衛鳥로티여바잔날만하느  
라

絳草晴江上에글러버스물이되야  
색으로벌어들어  
向玄야은뜻은夕陽이재넘어감의  
남자그려우르라

字太古號荷衣子

宣廟朝舍人

어제오든눈이沙堤에도오듯던가눈이몰래조고몰래  
도눈이로다암아도世上일이다이런가흐노라

字明甫號漢陰

宣廟朝領相

큰 홍에 마득 박어 醉도록 먹으면 什萬古英雄을 손꼽아  
헤여 본이 암아도 劉伶李白이 내 벗인가 하노라

字子常號白沙

宣廟朝領相

時節도 절어흐니 人事도 일어흐다 일어흐거니 어이 절  
어안 일손이 이런 자 절언 자흐니 흠숨피 위흐노라

傳는는물도역

外立漢文帝

長沙王賈太傅는 눈물도 열일씩고 漢文帝昇平時에 痛  
哭은 무슴일고 우리도 그런척만나시나이 올코호노

鐵嶺 높흔 재에 쉬여 넘는 겨구를 아까 못의 눈물을 비삼

刊

[illegible]





功名이되무엇고헌신씩버신이로다田園에드라오너  
麋鹿이벗이로다百年을이리지넘드亦君恩이로다  
四皓1真的 벗가畱侯의音訖로다眞實로四皓1변은  
一疋안이나올연이그려드안인양호여呂氏客이되도  
다

벗마의히오라비무스일석잇는다無心호져곡이를여  
어무스호렷는다득어라호물에잇건이벗젓신들엇더  
리

헛마리간나져른아기棟이옥은아튼아數間茅屋이적  
은줄웃지마라어줍어滿山蘿月이다네젓신가호노라  
蒼梧山히진後에二妃는엇의간고흐미못죽은들셔름  
이엇터튼고千古에잇뜻알이는땃습힌가호노라

8 술벽고노는일을나도誤고줄알것만은信陵君못덤우  
희밧가는줄못보신가百年이亦享호니안이늘고어  
이리



날을 못지마라前身이柱下史로靑牛로나간後에엇힐  
만에드라온다世間이하多事하니온동만동하여라  
寒食비온밤에봄빛치다퍼져다無情한花柳도써를아  
라피엇거늘엇덧타우리의님은가고아니온은이  
어젯밤비온후에石榴곳이다피엇다芙蓉塘畔에水晶  
簷을것어두고술向할집흔시름을못어플어하노라  
窓밖귀위석버석남이신가이러보니蕙蘭蹊徑에落葉  
은므스일고어줍어有恨한肝腸이다긋출가하노라  
銀釭에불이붙고獸爐에香이盡止芙蓉집흔帳에하  
자세야안잤시니엇덧타현저更點아잠못들어하노라  
아침은비오든이느즌인은바람이로다千里萬里스길  
에風雨는무스일고두어라黃昏이거렸거니워여간들  
엇더리

是非업은後1니榮辱이다不関한琴書를호튼後에이  
몸이閒暇건이白鷗야機事를니즘은너와번가하노라

南山 김흔 뜰에 두어 일랑 날 위 두고 三神山 不死藥을 다  
키야 심근말 이어 좁어 滄海桑田을 흔자 불가흔 누라  
술이 몇가지 오 淸酒와 濁酒 1로 다 막고 醉혈선정淸濁  
이 關係하라 들먹고 風淸하 밤이여니 안이 연들 엇더  
느 저 날 녀이 고 太古 역을 못보 완자 結繩을 罷하 後에 世  
故도 하도 할 ㅅ아 출하로 酒鄉에 드려어니 世界를 니즐이  
라

罇中에 술이 잇고 座上에 논이 마득 大兕 孔文舉를 못쳐  
어터 불서이 고어 좁어 世間 餘子를 넘더 무슴하리오  
느 리삼긴 사름시름도 하도 흔 ㅅ아 날러다 못날러나 프듯  
던가 眞實로 뜰일것심연나 드 불너 보리라

放翁詩餘序

中國之歌備風雅而登載籍我國所謂歌者只足以  
爲賓筵之娛用之風雅載籍則否焉蓋語音殊也中  
華之音以言爲文我國之音待譯乃文故我東非才



已糠粃土直惟遇物諷詠則有馮婦下車之病有所  
會心輒形詩章而有餘繼以方言而腔之而記之以  
諺此僅下里折楊無得於騷壇一斑而其出於遊戲  
或不無可觀萬曆癸丑長至放翁書于黔浦田舍

李廷龜

字聖微號月沙

宣廟朝官至右相

님을밧을벗가못밧들슨님이시라미더운時節도못미  
들줄아라스라밧기야어려워만은아니밧고어이리

趙纘韓

字善述號玄洲

宣廟朝官至承旨

貧賤을풀야하고富貴門에드러가니침업신흥정을누  
몬적하랴하리江山과風月은달나하니그는그리못하  
리

天地 몇番외며英雄은괴누런고萬古興亡이愁憂좁에  
숨이연을어디셔妄伶엿거슨노지말나하느이

權

韓 字汝章號石洲

宣廟朝個儻不仕

이몸이되을윈머무어시될고하니崑崙山上々峯에落

落長松되얏다가羣山에雪滿하거든흐느욱두하리라

李安訥

字子敏 號東岳 宣廟朝官至判書

天地로帳幕삼고日月로燈燭삼아北海를휘여다가酒  
罇에다허두고南極에老人星對하야訥을뒤를모르리  
라

金塗

字冠玉 號北渚 宣廟朝登第官至領相

瀟湘江긴대배혀하늘밋기뵈를미야蔽日浮雲을다쓸  
러드리고직時節이하殊常하니쓸똥말똥하여라

洪瑞鳳

字輝世 號鶴谷 宣廟朝官至領相

離別하던날에피물눈이난지만지鴨綠江나린물이푸  
른빛치전혀업다비우희헤여원沙그이처음불와하드  
라

李舜臣

字

宣廟朝統制使

間山섬들보근밤의戍樓에하자안자큰발넙희쳐고김  
흔시름하는척의어디서一聲胡笳는나의애를긋는이

金南惠

字叔陵 號清庵

宣廟朝判書



蒼々되公이有言敢不死아千古에 눈물든英雄이면  
죽을지글고

趙存性

字守初號龍湖

宣廟朝官至知敦寧

아희야구럭網태어더西山에날늦거다밤진안고사리  
하마아니늑엇시라이몸이이푸새안이년朝夕어너지  
내리

呼兒先問有無筐回首西山晚日長却怕夜來薇蕨

老只緣朝夕不盈腸

西山採薇

아희야되롱삿갓출화東澗에비지거다긴아긴낙머에  
미늘업슨낙시미야저끄기놀나지마라내興기워호노  
라

呼兒將出綠簑衣東澗雨霏灑石磯簑々竹竿魚自

在爲他溪老已忘機

東澗觀魚

아희야病早飯다고南畝에일이하다철우론싸복를늘  
마조잠으런요두어라聖世躬耕도亦君恩이샷디

呼兒曉起促盤飧南畝春溪事已殷欲把犂鉏誰與耦  
聖時農圃亦君恩南畝躬耕

아희야요벽여내여야郭에서술벽자大醉호얼글을들  
밋치시려오니어즈어羲皇上人을오날다시브와다

呼兒騎犢過前川야郭新醪正似泉大醉浪吟牛背  
月恍然身在伏羲天야郭醉歸

名妓九人

真伊

青山裡碧水야수니감을자랑말아一到滄海호면다  
시오기어려운이明月이滿空山호나쉬여간들엇더리  
冬로들긴아긴밤을한허리를베허내야春風니불알에  
서리서리녀헛다가어른남오신날밤의급의급의퍼리  
라

내언제無信호여님을언제소깃판디月沉三更에온듯  
이전혀업다秋風에지는남소귀가건들아너호리오



紅粧

○寒松亭들름은밤의鏡浦臺에물결잔재有信호白鷗는  
오락가락하것만은엇덧타우리의王孫은가고안이온  
은이

笑春風

唐虞를어찌본듯漢唐宋을오늘본듯通古今達事理호  
는明哲士엇덧타그적설의歷히모로는武夫를어니  
쫓출이

前言은戲之어니내말슴허물마오文武一體나출나도  
좁간아옴언이두어라楚武夫를아니쫓고어이리  
齊도大國이오楚도大國亦이라조고만藤國이間於齊  
楚호엇시니두어라이다조흔이事齊事楚호리라

小栢舟

朴煒西伯也興客搏奕命作此歌

相公를보온후에事을밋조온아拙直호口음에病들  
外念慮1런이이리마적리차호시니百年同抱호리

다 象宮士卒兵馬車色

寒雨

어니어러잘이무스일어러잘이鶯鶯枕翡翠衾을어더  
드고어러잘이오늘은춘비맛아시니누아잘가흐노라  
尤之

長松으로빈를무어大同江에석위드고柳一枝휘여다  
가곳이곳이머얏는디어디셔伶仃엇것스소헤들나흐  
은이

松伊

솔이솔이라흐니모스솔만덕이는다千尋絶壁에落  
長松너긔로라길아린樵童의적낫시야거러불솔잇시  
라

梅花

梅花벚등걸에春節이도라오니벚피든何枝에피영죽  
흐다만은春雪이亂紛흐니필동할듯흐여라



호리로다 두어라 繁友 현님인이 새와 모습 호리오

朴明賢

들름근五禮城에 현아 문벗이 안자思鄉感淚를 뉘안이  
질이 만은 암아도 爲國丹忠은 낫분인가 호노라

林 晉

활지어 끝에 걸고 칼 곧 아넵희치고 鐵瓮城邊에 筒箭베  
그누었시니 보완다 보패랴 소리 에 줍뭇들어 호노라

金應鼎

太平天地間에 簞輶를 돌어 메고 두스매느리치고 우죽  
우죽호은 뜻은 人世에 걸인 일업슨니 그를 조화 호노라

李仲集

8 뉘라셔 날하닷는고 늙은이도 이려 호가 못보면 반갑고  
蓂들변우음난다 春風에 호는 白髮이야 번들어나 호

리오

金光煜

宇晦而踰竹雨

光海朝判書

常里

陶淵明 죽은 후에 五淵明이 잇단 말가 밤먹을 넷일홈이  
맛초와 못들씨고도라와守拙田園이야괴오버오달으  
라

功名도너갓느라富貴도너갓느라世上煩憂한일다주  
어너갓느라버몸을버미자너존이남이아너이즐야  
뒷집의술술을부너거튼브리말못찬다존은것마고씨  
허쥬비저괴야내너여러날죽렸든입이니단아쏘아먹  
을이라

江山間雅意風景다주어맛다잇셔버흐자님자연이쉬  
라셔듯들논이논이야숨쉬지덕인들난하불쉴이시라  
질감아조히싹고바회아리섬물기려꽃들게싹고저  
리짐치쓰어번이世上에이득맛시아논이알가흐노라  
어화거自鷗야무슨後事흐느슨글습호로바잔임여꼭  
이엇기흐느고야날곳치군마음업시점만들면엇더리  
茅簷긴아긴히에히올일이아조업다蒲團에넋잠들어



白鷗늘나거다어디셔一聲漁笛은조차興을돕느니  
헛글고싯은文書다죽어후리치고匹馬秋風에채을쳐  
도라오니암우리된인새노히다이드록식환하랴  
8대막대너를보니有信하꼬반가왜라난이아희적의너  
를드고든니든이이제관窓뒤히헛다가날뒤세고단여

라  
사름이죽은後에다시산이보완는다드리가보너업고  
나오다하너업너우리는그런줄아오리사라신제노  
라

黃河水曷다튼이聖人이나시도다草野羣賢이다닐어  
나닷말가어쭙어江山風月을누를주고잇년이  
細柳柯枝것거낙근극이세여들고술집을쳐출여短橋  
로건너가니온물에참花나린이아브딘줄몰너라  
東風이건듯부러積雪을다극인이四面靑山이뵈얼글  
나느니라귀밧티히묵은서리는극을쌀을모른다

崔行首속달함호새趙同甲속달함호새독짐게짐호  
려點心날식이소每日에이러성글면므스시름잇시리  
具仁屋 字仲載 仁祖朝官至右相  
御前に失言호고特命으로내쳐이이몸갈디업서西  
湖을처자간이밤中만닷드느소리에德君誠이새로와  
라

鄭太和

字圓春號陽坡

仁祖朝官至領相

술을醉게먹고들엿이안잠시니億萬시름이가느라下  
直호다아희야盃마득부워라시름餞送호리라

蔡裕後

字伯昌號湖洲

仁祖朝判書

돈아손아李濁酒족고땃테비운질瓶들이더옥조화얼  
온자박국이를등지등식워드고아희야沈이沈菜글  
만평업다말고내려라

尹善道

字約而號孤山

仁祖朝參議

○白雲이날어나고나모곳치호으킨다말글에東湖가고



날이더온작가물우희곡이엿다글벽이들샅셋시오락  
가락하는고야아희야낙대는쥐엇노라濁酒瓶을살엇  
는야

蓮葉에밥싸두고飯饌을란장만말아靑蕩호은써잇노  
라綠簾衣을가적온야엇덧타無心호白鷗는간곳마다  
쫓친다

말음남히브람이나나蓬窓이서늘호다너름브롬호호  
쏘야비가온더로식여스라어좁어北浦南江이어딘안  
이조호리

웃우희설이오되지을줄모를그다낙시비좁다호아浮  
世와엇터호나두어라來日도이리호고모리도이리호  
리라

낙시줄거터두고蓬窓에들을브자호마밤들건야子規  
소리들게난다잇다암魚躍龍門호리興이쫓차나그리  
라

醉<sup>하</sup>여 누엇다가 여흥아리<sup>느</sup>리려다落<sup>하</sup>이 흥너온이  
桃源이 갓갑도다어<sup>슴</sup>어人<sup>세</sup>世紅塵이 언다가려잇는  
고

구즌비머치가고시<sup>벗</sup>물이물가온다東湖로돌아봄여  
西湖로가자스라어<sup>슴</sup>어압되히진아가고<sup>뒷</sup>되히나아  
오는고다

머흔구름恨치말아世<sup>上</sup>을<sup>ㄴ</sup>리온다波浪聲<sup>厭</sup>치말아  
塵喧을막는고야<sup>두</sup>어라<sup>막</sup>히고<sup>ㄴ</sup>리<sup>술</sup>을나는조화<sup>하</sup>  
노라

흰이슬빛젖는<sup>디</sup>몹은들이<sup>듯</sup>아온다鳳凰樓<sup>紗然</sup>하<sup>니</sup>  
清光을<sup>술</sup>을<sup>술</sup>이玉兔야<sup>너</sup>엇는葉으란豪客이나<sup>억</sup>이  
고적

芳草도브라브여蘭芝도<sup>뜻</sup>어브자一葉扁舟에<sup>실</sup>은거  
시므스것고갈<sup>져</sup>는<sup>넋</sup>분이<sup>런</sup>이<sup>올</sup>져는<sup>들</sup>이<sup>도</sup>닷다  
진날이<sup>점</sup>으는<sup>출</sup>興에<sup>게</sup>위로로도다<sup>빛</sup>대를<sup>드</sup>림여



山水間바회아리썩집을짓노라  
흐이모른놈들은웃는다  
흐다만은어리고하암엇뜻에는내  
分인가흐노라  
브리밤꽃나물을알마초먹은後에  
바회뜻물그의슬그  
장노니노라그남아년암은일이야  
브를줄이잇시라  
내性情게어르든이하늘이알으실  
샤人間萬事을흐일  
도아니맛제다만당듯들이업슨  
江山을직희라고흐도  
다  
비오는디들에갈야簍笠  
닷고쇼벽여라霰히每樣이라  
장기연장다슬여라취다가개는  
날브와스리긴맛같이  
라  
還上타산다흐고그르스그르다  
흐니夷齊의늑흔줄을  
이렁구러알안지고어줍어사  
름이야誤이라히運의탓  
신가흐노라  
남오도안인것시풀도안인  
것시꽃기는취식임여속은  
어니취엇는다절어고四時에  
프른이그를조화흐노라

常히런가삼이런가白王京에올나간이王皇은반기시  
되羣仙이별이드라두어라五湖煙月이내分일시올토  
다

뜻짐에삼을썩어十二樓에들어가니王皇은우스시되  
羣仙이썩짓는다어썩어百萬億蒼生을연의결에붙으  
리

하늘이이젓신제무슨術로기워넘여白王樓重修할제  
연의맛치일워번고王皇게물어보자하든이다못하여  
온아다

슬픈아썩어온아올타흔아誤다하아내몸에히올일  
만닥고닥썩썩이연정그맛기년압은일이야分別할썩  
이시라

내일忘伶된줄을내라하여몰을썩야이모음얼이기도  
남為할탓시로다암은아암으리날러도남이혜여보소  
석



88 술도 벽을 연이와 德업스면 亂하는이 흠도 추련이와 禮  
업스면 雜되는이 암아도 德禮을직희면 萬壽無疆함이  
라

松間石室을쳐자 曉月을불여하니 空山落葉에길은어  
이쳐자가리어되셔 白雲조차온이 女蘿衣가묵어왜라  
업네히안개것고뒛되에히빛쬐다밤물은물러지고낮  
물이밀어온다 江村에온갓핀곳이먼빛치더욱조해라  
고은벚치씩엿는뒤물결이기름갓다금을을주워들락  
낙시를늘늘릴가조해라 濯纓歌에興이난이목이젓차  
니즐느라

夕陽이빛것시니금안하여도라가자 崖柳汀花는굽의  
굽의새로왜라 眞寶로三公을불얼손아 萬事을잇젓잇  
느라

來日도업스라봄밤이벚꽃새이낙시로막뒤삼고 葉靡  
을쳐자보자암아도 漁父의生涯는이러구러지네그리

를결이흐리거든말을식다엇더호리  
吳江에가자호여도魚腹忠魂을  
千年怒濤슬프도다楚江에가자호  
여도魚腹忠魂을  
시라

萬柳綠陰어린곳에一片苔磯만가  
왜라들이에다듯거  
든漁人爭渡힘을마라가다가鶴髮老翁만나거든雷澤  
讓居效測호자

夕陽조타만은黃昏이갓잡도다바회우에  
굽은길솔아  
리로빛겨있다碧樹에빛고은씩  
쏟리는곳이셔느리  
로다

모리우히금을벌고뛰밋뛰우어  
쉬자모귀을뵈다흐나  
蒼蠅이엇더호니眞實로다만호근  
심은素大夫幸하들  
을시라

밤스이風浪날줄을미리어니  
斟酌호리野渡橫舟을  
누  
라셔날리는고어굽어澗邊幽草는眞實로  
보기조화라  
蝸室을되라보니白雲이돌너있다  
보들밋쳐로뒤고



物外에 조흔일이 漁父生涯 안이런야 漁翁을 웃지말아  
그림에도 그려터라 四時에 흥인則 흥가지나 秋江興이  
조화라

기력이 쇠는 밧지 못보든 띄비는 그야 낙시도 할 연이와  
醉한 거시 흥이로 다 뉘라셔 錦繡千山에 夕陽 빛출내엿  
는이

桶撥에 쉼노는 목이 벗치나 들리는 이 蘆花에 불을 붙쳐  
글희내여 구워 녹코아 희야 醞을 거후로 혀 참국이 예  
부어 다고

넙넙롭고 나분이 들온듯 물아와다 暝色은 나아오되  
淸興이 버려잇다 어인지 綠樹淸江이 슬미지도아미라  
乾坤이 제금인가 잇싸히어 드미오 西風塵 못밧춘이 붓  
쳐하여 무슴허리우리는 드른 말업슨이 귀시슴이 多事  
하다

구름이 거든後에 희빛치득 겹쳐다 天地閉塞하되바다

흔依舊하다 ㅁ 업손들결이김뻗는듯하여  
주대도다슬이끄릿밥을막앗는야 瀟湘洞庭은그물이  
연다흐다암아도잇어 漁釣야이만흐더이실야

옛튼개곡이들이먼소히다갖는이적은듯날조흔제맛  
탕에나가보자밋기가밋기꽃다오면글근곡이문다하  
너

간밤의느겐後에景物이달랏고야압히는千頃琉璃도  
라보니萬疊玉山仙界山가佛界山하여興을계위하느  
라

금을시작너저두고빗머를두드린다압배을건너벗야  
벗番인아혀여본고어디서無端흐된브름이후려안이  
불어올가

차라가는가마피들이벗치나진아건이압길이어두운  
이暮雪이즈자젖다뉘라셔그조흔鵝鴨池에草木苔을  
삿듯던고

舟崖下로 舟를이 崖下에 停泊하고 舟中에 坐하여 望遠을 하노라



아름다운이萬頃波에 빛나고  
滄洲에우리道를보이니  
흔이런고모름이三千六百  
나시는숨끔은제어잇던고  
어화점을어가다偃息이  
맛당토다나는논색린길에  
興  
침여도라와서西峯에  
돌넘어가도록竹窓에  
빛겨잇노  
라

8

水國에그을이든이곡이  
마다슬적잇다萬頃滄波  
에슬  
그지느닐며셔어즐  
흔人世을도라본이  
너도록더욱조  
화라

江山이갓타흔들내  
今으로가잇는야  
님금의恩惠을이  
제더옥알앗노라  
암으리갓고적  
흔들히을일이  
업시라  
右漁父歌五十二  
章者隱遯山林  
藏蹤江湖功名  
歸  
於樊履富貴視  
於浮雲盖漁者  
漁其心性之至  
善歌  
者歌其物外之  
樂志然此翁歌  
法清高而脫俗  
豈不  
美哉何其別也  
吾平生性好歌  
曲故敢搆數行  
而蹤  
焉歲癸未杏花  
節七四翁老歌  
齋金壽長書

鄭斗卿

字君平號東溟

仁祖朝參判

金樽에 마득 술을 슬며저  
어즐음이곳이 업다 어즐  
어夕陽이 盡타말아 들이  
아차

君平既棄世 言니世亦棄君平  
을醉狂은上之上이오時  
事는更之更이라다 만지  
淸風明月은간곳마다  
아차

余髮未燥已嗜詩猥為溟老  
所獎愛嘗呼余為敬亭

山盖謂相看不厭之意也  
余荷其誘掖開導之勤致

力於觚翰間而病不能專  
曾於戊申間抱病杜門一

日東溟來問任休窩有後  
金栢谷得臣亦繼至皆不

期也余於是設小酌致數  
三女樂以娛之酒半溟丈

乘興舉酌曰丈夫生世韶  
華如電今朝一懽可敵萬

鍾休窩即吟一絕曰春寒  
動梅鴈酒濃栢翁溟老兩

難逢樽前錦瑟兼淸唱醉  
對終南雪後峰題畢屬東

溟曰弱者先手願君以扛  
鼎力試於尊匣沃盥也東

溟曰弱者先手願君以扛  
鼎力試於尊匣沃盥也東



者歌舞都舞吾謀贈之作短歌歌者歌飲樂者樂不  
紫而唱仍破顏微笑素髮朱顏真酒中仙也休寓俾余和  
韻余忘拙效頻曰清夜開樽琥珀濃文章三老一時逢縱  
橫筆下千鈞力可倒天台萬丈峯諸公皆稱善洪睨洲錫  
箕後至連倒三盃携起栢谷躡舞東溟顧余曰人生百  
年此樂如何不恨我不見古人恨古人之不見我也君其  
志之庶使此會傳之不朽遂並疏于左以觀夫先輩寓意  
遣辭之處耳豐山後人玄默子洪宇海識

姜栢年

字叔父號雪峯

仁祖朝刊書

青春에 곱든樣姿님으로야 다하셔다 이제님이 보면날  
인줄아르실가眞實로날인줄아라보면곳에죽다설우  
라

曹漢英

字守而號晦谷

仁祖朝參判

玉欄에 못이 핀이十年이언의덧그中夜悲歌에느믈에  
위안자잇셔슬들이설운口음은너흐잔가하느라  
樂遊原빛긴발에昭陵을보라보니힐구름깃흔곳에金

粟堆보기설워언의재이몸이도라가다시되이늘려오

金墳 字伯厚 號潛谷 孝廟朝右相

○잔에집의술닉거든부디날을블으시소草堂에꽃피거  
든나도잔에請히옴새百年歲시름업슬일을議論고려  
하노라

李沆 字清之 號 孝廟朝右相

羣山을削平터들洞庭湖 1 널을랏다桂樹을베히던들  
들이터옥블곳어슬뜻드그일우지못하니늘기설워하  
노라

積城君

새벽비일개날에닐거슬아아희들아뒷되고사리하마  
안이즈랏시라오늘란일것거온어라새술安酒하리라

麟平大君 潛

主人이好事하야遠客을慰勞할외多情歌管이비아는  
이客愁1로다어즘어密城今日이太平인가하노라

用原音 侃



8 들은 언저니 남여 술은 뒤심기 그 崔作이 인석 崔作이  
 도간디 업다 암아도 물을 뒤 업슨이 홀그 醉코글이라  
 이 술이 天香酒이라 모다 대 되슬 타마소 令辰에 醉후  
 에 解醒盃다시 하새 힘을며 聖代을 만나 안이 醉코어  
 니리 宗親宴會 宣醴賜樂

9 濛河水도라든이 師尙父의 釣臺로다 渭水風煙이야  
 古 今에 달을 쓴야 어 좁어 玉璜異事을 親히 본듯하여라

10 天寶山나 린 물을 金谷村에 흘터 두고 玉流堂지은 詩을  
 안은 다 도로 은다 眞實로 잇 詩을 알면 날인 줄을 알이라  
 日月도 네와 갓고 山川도 依舊하디 大明文物은 俗節  
 업  
 시 간디 업다 두어라 天運이 循環하니 다 시 불가하노라

11 히적어 霜머늘 밤中만 녀든이 詩업시 불아 진이 새날  
 이 되엿는야 歲月이 流水로든이 늙기 覺워하노라

12 업어 나날나 흐서어 질과 자 길러 번이이 두 分안이 심연  
 너 몸나 셔어 질 쓴야 암아도 至極 恩德을 못내 갑하하  
 노라





以尊康位遇壽隆壽如無品金龜三才既在下  
其福履之盛世蓋比之於漢萬石君然公又小心畏  
慎孜孜焉躬布素儒雅之行而言之出於情性之正  
者又如此其可貴重也豈止如里巷田畝野夫之詞  
而惜哉我朝無抹誼之舉不免為巾笥之藏也雖  
然使世之人得此卷而讀之咏嘆淫液之餘其榮利  
塵氛之累豈不少瘳乎而愛君勅身之念亦必有不  
能已者矣公其勿秘惜之也丁丑暮春姪迺安李賀  
朝誼書

李莘鎮

字子西號默齋

孝廟朝監司

壁上에 돛은 柯枝孤竹君의 二子로다 首陽山에 티드  
고半壁에와결련는다이저는周武王업슨이흐마난들  
엇더리

司草堂에김히든눈을새솔의에늘나연이梅花雨로간柯  
枝에夕陽이거의로다아희야나대내여리극이잡이점  
으러다

李貴鎮

字

孝廟朝兵使

靑駘馬여원後1니紫羅君도興盡커다나의風度야업

다야하랴문은世上에至極호公物을들여불가하느라

許

珽

字仲玉號松湖

孝廟朝永吉

日中三足鳥야가말고내말들어너의는反哺鳥1라

鳥中之曾參이론이北堂에鶴髮親을더더히하느라

라

西湖는진밤의들엿치났곳은지鶴毫을님의혀고江皋

로날여간이蓬海의羽衣仙人을마조본뜻하느라

宋時烈

字英甫號尤菴

肅宗朝右相

님이혜오심애나는專혀밋엇든이날思郎하든情을누

손더옴기신고취음에워지든것시연이더도록설우라

靑山도절느절느綠水도절느절느山절느水절느山水

間에나도절느이中에절느조란봄이하기도절느하리

라

南九萬

字雲谷號藥亭

精采明顯



東窓이 밝았는 야재 넘어서래 긴 밤출연 재갈이 은이

李澤 字

肅宗朝兵使

洛陽才子 못으신 곳에 鄉村武士들 어간이白玉처럼  
들렷짐로다 만은 두어라 文武一體니 글고 갈가호노라  
감장새 작다 호고 大鵬아 웃지말아 九萬長空을 너도 날  
고 쳐도 난다 두어라 一般飛鳥니 네네 오제오달으라

柳赫然 字

肅宗朝大將

뜻는 물서니 높고 든은 칼보의서다 無情歲月은 白髮을  
지니고니 암아도 聖主의 鴻恩을 못감홀가호노라

朴泰輔

字士元 號玄齋

肅宗朝應教

宵中에 불이 난이 五臟이다 타간다 神農氏 甕에 회와 불  
날藥물어보니 忠節과 慷慨로 난 불인 이글藥업다호노  
라

具志禎 字

肅宗朝牧使

쥐손소록이 들아 비블은 자량말아 清江의 위鶴이 즐

인들블을손야내몸이聞暇할연정슬못진글이니리

金聲寔

字

肅廟朝牧使

公庭에吏退호고할일이아조업시扁舟에술을씻고  
中臺차자간이蘆花에數탄호글며이는제벗인가호들

아

술씨여닐어안자검은고을戲弄호니窓밖피뎡는鶴이

죽여셔넘는는다야희야남은술부어라興이다시온다

申靖夏

字正肅

肅廟朝修撰

벼슬이좃타호들이내몸에백일손야蹇驢를밧비모라  
故山으로들여간이어티셔惠호비호즐기에出塵行裝  
씻서고

前山昨夜雨에다득호秋氣로다로花田판술블에호의  
밧치로다아희야뒗버楠에撥곡이호년날테라

諫死호朴坡州야죽을와설위말아三百年綱常을비  
호자붓들거다우리의聖君不遠復이비국간가호노



검은고슴뺨자늑고호연이낫좁든제柴門犬吠聲에반  
가온벗오드고야아희야點心도홀연이와外上濁酒내  
여라

자남은보라매를엇그제손주셔혀뺨짓쳐방울들아夕  
陽에맞고난이丈夫의平生得意는잇썬인가호느라

벼슬을저마다호면農夫혈이늑이심여醫貧이病곳침  
연北郊山이절어혈야아희야盞드부어라내썬대르  
호리라

儒川君 濕

어제도爛醉호고오늘도드술이로다그제셔엇든지곳  
그제는나물너라來日은西湖에벗옴안이썬동말썬호  
여라

尹斗緒 序

肅廟朝進士

王이흠에뭇쳐길마의불여시나온은이가는이흠이라  
호는고아두어라알이잇슬썬이흠인듯시잇거라

俞崇序

肅  
廟  
參  
判

清溪邊白沙上에 혼자 서는 저白鹭야 나의 먹은 새를 번  
들안 이알야 실야 風塵을 슬 희여 흠이야 네 오네 오달을  
라

간밤오든비에압누에물지거다등검고술진꼭이버들  
 녁씨을나피야아희야금을내여라꼭이잡이흐자스라

李廷燮 字 甫廟朝副率

아랏노라아랏노라나는별셔알앗노라人情는兎角이  
오世事는牛毛로다어디셔忘伶엇것슨올아말나흐는  
이  
세웃그큰아큰물세이내시름등재게실어酒泉바다히  
풍들웃침등드그라자眞實로그려못하량이면自然  
삭아지리라

朴仁老

盤中早紅柑이끄와드되느미라柚子이안일아드품업





그가 시는 그 봄풀이 프르 그 풀은 거든 即時 돌아 오

朱義植

字道源

肅廟朝恭原縣

하늘이 급다 응고 발적 여석지 말며 싸히듯 텨다 그 마니  
봄지 다 올여시 하늘 싸늘고 듯터 위드내 襟心을 헐어  
窓밖의童子와 석오늘이 새히라 커늘 東窓을 열고 보  
너네 듯든히 듯아 있다 아히야 萬古흔히 나 後天에 와 날  
너라

오늘을 每樣 두어 점으드 새도 다라 萬古흔린 이 一日新  
을어이 흐리 百刻에 흐 蓄식시서 몸을 조개 흘이라

天心에 듯은 돌과 水面에 분은 바람 上下聲色이 一中에  
셔 갈렸는 이 사름이 中을 타 낫시너 어 짝이는 흐가지라  
仁心은 터히 되고 孝悌忠信기 棟이 되야 禮義廉恥로  
즉이 네 옛신이 千萬年風雨를 만난들 기을 줄이 잇실야  
忠臣의 속마음을 그 님금이 모름으로 九原千載에 다슬  
허 흘연이와 比干은 마음을 뵈얏신이 모신恨이 잇실이



을여...  
屈原忠魂비예녀훈곡이未石江에긴곡래되야李謫仙  
등에언고하늘에올나신이이제야새로난곡이야낙가  
슴다엇더리

無道호기로써陰陵에길을알코듯의여갈다업서한을  
보기붓그러위鳥江을건너지안여어니슬허호리오

唐虞도족건이와夏商周이더욱조화이제를헤여훈이  
언의적단훈거이고堯天에舜日이빛앗신이암으진줄

물내라

人生을헤알인이훈바탕남이르다조흔일구즌일남씩  
에남이연이두어라남곳튼人生이안이늘고어너리

荆山璞玉을엇어世上사름뵈아간이것치돌이연이속  
알이뉘이실이두어라알이알쥬이돌힌듯시잇거라

말호년雜類이라호고말안이변어리다호년貪寒을늘  
이웃고富貴을새오는이암아도이하늘아래셔살을늘

이어려와라

능고病든몸이가다암으딘아절노소슨되히손조비  
오리라結實이엇디리만은連命인아홀이라

余嘗得見朱公道源所製新翻一二闕惟恨未得其  
全調也卞君文星和叔為我得全篇以脉之余三復  
遍閱其辭正大其旨微婉皆發乎情性而實有雅之  
遺韻使古之觀民風者採之其亦得微於陳詩之列  
明矣噫公非徒能於此也持身恭儉處心恬白遂々  
有君子之風焉南坡金天澤書

### 金三賢

능기설운줄을모르고나능엇는가春先이넋이업서白  
髮이절노난다그려도少年억음은減호일이업세라  
綠楊春三月을잡아미야드량이면빈머리설바버야차  
차동허미렷만은히마다미든못호고능기설위호노라  
松壇에선좀세야醉眼을열어본이夕陽浦口에나드는  
이白鷗1로다암아도이江山알이는낫별인가호노라  
근하근하訓을외에아름기운設득다紫生政令을訓을



호노라

내精靈술에섯겨님의속에흘너들어九回肝腸을寸  
이처자가셔날잇고向호口음을다슬오려호노라

許 檀

父母一生之호신이續莫大焉이옴건이槌之流血인들  
疾然을슴아홀야生我코鞠我호恩德을못내갹하호노  
라

金裕器

내몸에病이만하世上에널리이여是非榮辱을오로다  
니것판은담안지豪夫호一癖이디불음이조화라  
春風桃李花들아고은樣恣 잘낭말고蒼松綠竹을歲寒  
에불여몬아후호코落호節을곳칠줄이잇시라  
丈夫로삼겨나셔立身揚名못홀짐연출하로다떨치  
일업시능을이라이밧碌호활爲에걸리일줄잇시  
唐虞는언제時節孔孟은위시런고淳風禮樂이戰國이

되얏신이이름이석은선뵈로擊節悲歌호노라  
泰山에올나안자四海를굽어본이天地四方이  
현출도  
호려이고丈夫의浩然之氣를오늘이야패라

不忠不孝호고罪大호이니몸이苟히사라잇셔히을  
일업건이와그런아太平聖代에능기철위호노라

×

오늘은川獵호고來日은山行호새못달힘모리호고  
諸信을난글귀호이고글귀편射會호리各持壺호시  
소果  
景星出卿雲興호고日月이光華로다三皇禮樂이오五  
帝의文物이로다四海로太平酒빛저萬姓同醉호리라

金君大哉以善歌鳴余於丙申一造其門叩其篋浮  
一篇開卷而閱之乃自家所為新翻也仍要余訂正  
余觀其詞說盡情境諧合音律信乎其樂府之絕調  
也以余不才奚容贅焉遂相與問荅而歸轉面之頃  
已成陳跡曹子建存沒之感至是極矣余於是括得  
其遺曲以傳于世要余其名同傳不朽也南坡金天



金聖謨  
夢花에 잠든 白鷗 仙 窓 似 야 나 지 말 아 나 도 일 업 서 江湖  
客 이 되 엿 느 라 이 後 는 次 즐 이 업 신 이 너 를 좇 차 늘 이 라  
塵埃 에 못 찬 分 내 이 너 말 들 어 보 소 貴 富 功 名 이 좇 타 도  
홀 연 이 와 말 업 스 風 月 江 山 이 야 괴 조 혼 가 호 느 라  
紅塵 을 다 열 치 고 竹 杖 芒 鞋 집 고 신 고 검은 고 들 어 메 고  
西 湖 로 도 라 간 이 蘆 花 에 세 만 흔 글 먹 이 는 재 벗 인 가 호  
드라

○ 玉 盆 에 심 근 梅 花 空 柯 枝 것 거 번 이 꽃 도 곱 건 이 와 暗 香  
이 더 옥 좇 타 두 어 라 것 거 왔 건 이 불 일 줄 이 잇 시 라  
글 레 버 스 千 里 馬 를 누 라 셔 잡 바 다 가 租 犇 슬 문 콩 에 슬  
지 게 먹 여 든 들 본 성 이 와 양 호 건 이 잇 슬 줄 이 잇 시 라

余 嘗 癖 於 歌 哀 集 國 朝 以 來 名 公 鉅 卿 委 巷 賤 流 之  
作 略 成 編 跌 矣 獨 漁 隱 金 聖 謨 之 譜 往 傳 誦 於 世  
而 知 其 全 譜 者 鮮 故 廣 求 而 莫 之 得 心 常 恨 焉 乃 者  
遇 西 湖 金 君 重 呂 金 君 卽 漁 隱 平 生 故 人 也 余 曰 予

嘗與漁隱從遊且久其所為永言想多記藏者我  
眎諸曰吾與漁隱同住江湖蓋十數年其平日之  
懷寓興者多有記藏而其中有足以油然感人者  
俗不知故藏諸巾笥以待好事者久矣子言如是  
曲自以其將行于世乎遂歸其全篇三復諷詠其  
得於跌宕山水趣者自見於辭語之表飄然有遐  
舉物外之意矣蓋漁隱逍遙天地間一閒人也凡  
於音律莫不妙悟性好江山構屋于江湖之上晞  
漁隱花朝月夕或拊琴坐柳磯或吹簫弄煙波  
鳴鵲而忘機觀魚而知樂以自放於形骸之外  
此其所以自適其適而善鳴於歌曲者歟南坡金  
天澤書

趙顯命

字晦時號歸鹿

英廟朝左相

헌샛갓자른되롱삼집고흐의메고느덕에물불이라  
바기음이엇덧튼이암아도朴杖棊이슬이듬업  
슨가호노라

李

莊

詩

英

廟

朝

左

相

詩



신음만지고 종득이 세다 불쌍하고 그 땅이 고령이라  
라장기연장다슬여라쉬다가거는날보와스리긴밧갈  
이라

李

添 字

號小岳樓

肅廟朝縣監子規三章

子規야우지말아울어도속절엽다울거든너만우지날  
은어니울이는다암아도비슬의들을썬면가슴알파하  
노라

에옛분비님금을성각하고절노은이하늘이식엇거든  
네어니울렸실이날업슨霜天雪月에는술노하여은이  
던다

不如歸不如歸하니도라갈만못하거든에옛분울이님  
금드스일로못가신고至今히梅竹樓돌엿치어제론듯  
하여라

昔我 端宗大王在寧越梅竹樓作子規詞雖閭巷  
婦幼聞來莫不殞淚矧且小臣亦是王孫叨守寢廟  
泣過清泠浦又聞子規於此地者乎遂作歌而哀之

名曰子規疊

子規詞

蜀魄啾山月低相思憶倚樓頭  
爾拜苦我聞哀非爾拜無我愁  
寄語人間離別客慎莫登春三月  
子規啼  
山月樓

五日長閑三日越哀詞腸斷  
曾陵雲妾身亦是王

孫女此地鶻聲不忍聞

傍人莫唱子規詞此曲當年不盡悲  
惟有六臣長夜淚曾陵松柏洒無枝

尹

游

亭伯修號晚霞

英廟朝判書

大同江 돌보는 밤의 碧漢槎를 띄워 두고 練光亭 醉호술  
이 浮碧樓에 다 서 거 다 암아도 閑西佳麗는 옛 분인 가호  
느라

○ 清流壁에 비를 미치고 白銀灘에 금을 걸어 자 남은 곡이를  
눈 실로 치 膾切극고 아 희야 盡으로 부어라 無盡도록 먹

을  
判  
과



내집이白鶴山中날츠들이뉘이실이入我室者一清風  
이오對我飲者一明月이라庭畔에鶴徘徊하너귀벗인  
가하노라

趙明履

序

英廟朝判書

雪岳山가는길에開骨山중을만나중들여물은말이楓  
葉이엇덧튼이이스이연하여서리친이써파젓다하드  
라

靑藜杖호릿짐여合江亭에올나가니洞天明月에를소  
릿별이로다여디석笙鶴仙人은날못츠자하느이  
城津에밤이깊고大海에를열칠제客店孤燈에故鄉이  
千里로다이제는摩天嶺넘엇신이청각하들여너리  
기럭이다나라가고서리는몇번온고秋夜도김도길사  
客愁도하도하다밤中만滿庭月色이故鄉인듯하리라  
右此四章辭意鮮明眼采高潔極可貴也而未得全

篇歎惜老歌齋金壽長書

李鼎輔

字士受 號三洲

英廟朝判書

狂風에 설년梨花 감여 오여 날이다  
가柯枝에 못을으르고  
검의 줄에 걸이거다  
저검의落花山모르고  
남의 잡듯하  
연다

東風어젯비에 초花 꽃다 피거다  
滿園紅綠이錦繡1가  
일위되라 두어라  
山家富貴를 사름알가  
하노라  
江湖에 노는곡이 죽인다  
불어마라  
漁父도라  
간後엿는  
이白鷺1로다  
終日드락  
잠기락  
閒暇호에  
업터라

8  
長空에 걸인들아  
萬古人物네  
알이라  
英雄은  
괴누구며  
豪傑은  
누구누구  
암아  
도第一人物은  
張子房인가  
하노  
라

漢나라第一功은  
汾水에  
一陣秋風  
輪臺詔안이  
런들  
天下를  
亡호는  
이千古에  
英雄豪傑之主는  
漢武帝山하노  
라

易水점은  
날에  
초비  
롬은  
무스  
일그  
聲  
悲歌에  
壯士1



朝士이 不 意 乎 矣 功 名 在 天 官 不 能 奪 之 矣  
몸이 늙었되라 두어 功 名 이 在 天 官 不 能 奪 之 矣

閻氏네 꽃을 보소 피는 듯이 웃는 이 王 公 將 相 官 人 들 靑  
春 을 羨 望 실 々 늙은 後 門 前 이 冷 落 官 年 늙은 官 人 들 가 官 노  
라

6 7 2 을 밤 蟲 은 들 에 반 만 피 온 蓮 花 인 듯 東 風 細 雨 에 조 오  
는 海 棠 花 1 듯 암 아 도 絶 代 花 容 은 너 別 人 가 官 노 라  
어 화 네 여 이 官 반 갑 고 도 늘 나 퀴 라 雲 雨 陽 臺 에 巫 山 仙  
女 다 시 본 듯 암 아 도 相 思 一 念 이 病 이 될 々 官 노 라  
宦 海 에 늘 난 물 綠 林 에 밋 출 손 가 갑 업 는 江 山 에 말 업 시  
누 었 시 너 白 鷗 도 벗 失 을 안 은 지 오 락 가 락 官 노 라

歸 去 來 歸 去 來 官 들 물 너 가 니 귀 누 고 며 功 名 이 浮 雲 인  
줄 々 官 다 다 알 것 반 는 世 上 에 浮 雲 이 업 손 이 그 를 슬 허  
官 노 라

洛陽春三月時에 꽃 々 다 다 花 柳 1 로 다 滿 城 春 光 이 太

平을글렸는이어좁어唐虞世界를다시본듯하여다  
太白이죽은後에江山이寂寞하여一片明月만碧空에  
떨어져라저돌아太白이업손이날과늘미엇더리



가하느라

宵鏡이夜 밤中에 두 눈면 말을 듣고大川을 거너다가 빠  
지거다적宵鏡아아이에 건너지마련들싸질쓸이잇시  
라

검은거슨가마피요힌거슨히오라비신거슨梅實이오  
쫄거슨소곰이라物性이다各々달은이物各付物하리  
라

마을打作다후後에洞內모화講信할지金風憲의메터  
지에朴勸農이되롱춤춘이座上에李尊位는拍掌大笑  
하더라

南陽에누은處士박갈기만일삼튼이草堂春日에무슨  
숨쉬엇고門밖귀큰王孫은세番도록오거너  
淸風北窓下에잠씨여누웠시니羲皇氏씩사름인가葛  
天氏씩百姓인가암아도太古人物은나뉘엿인가하느라  
治天下五十年에治歟아不治歟아億兆蒼生의帝力을

안  
 닷  
 말  
 가  
 康衢  
 에  
 擊壤歌  
 들  
 은  
 이  
 太平  
 인  
 가  
 호  
 노  
 라

누구 석廣廈千萬間을一時에 지어내여天下寒士를 다  
 덮자 하듯던고 닷두고 일우지 못함이네 오내오날을야  
 江山도 초흔씨고鳳凰臺가 더 왓는가 三山은 半落青天  
 外연을 二水는 中分白鷺洲로다李白이이 제앗씨도  
 이景빛귀듯쓰리라

山家에 봄이 온이自然이  
흐릴 만희 압내에 살도 밍여  
밋티 잊시도셔고來日은  
구름갓거든藥을키라가리  
梧桐성권비에秋風이乍  
起함이긋득애시름한디  
聲은무스일고江湖에消  
息이엇던지기력이알가  
하노라

銀漢은 높하지고 기력이 올 일씩의 홀은 밤서리 감에 두  
귀 밋치다 씨 거다 鏡裡에 白髮 衰容을 홀자 슬허호노라  
草野에 못친어문 消息이 엇터 홀고 糲飯 山菜를 먹은 아  
못 먹은 아世上에 憂患 뉘 모른이 그를 불어호노라



은다

秦檜가 업섯련들 金虜를 討平호는 거슬 孔明이 스드던  
들 中原을 恢復호는 거슬 天地間이 두 恨遺은 못내슬허  
호노라

앗츰 陽地 벗칙 등을 띄고 안젓사너우 리 남제 신되도이  
벗치되듯던지 암아도 王樓 高處에 消息 불나호노라  
千山에 눈이 乾坤이 一色이로다 白玉 琉璃界 山들이  
에셔러손가 千樹 萬樹에 梨花 散호는 陽春 本듯호여라  
巡簷 索共 梅花 笑호는 暗香 不動 月黃昏을 了득어 冷淡  
호는 白雪은 무스일고 암아도 閨裡 春光을 似새을가호  
노라

懸 鶉 百結衣로 쇼친구들 안헤窓外 風雪을 모르고 누엇  
신이 두어라 五更待漏 靴霜을 나는 안이 불웨라

○ 男兒의 快호일은 괴무엇시 蓀一인고 挾 泰山以 超北海  
외 乘長風 萬里 波浪과 酒一斗 詩百篇이라世上에 草芥

功名은不足道山가호노라

님글여어든病을藥으로 못칠은가함숨이야눈물이야  
寤寐에밧헛네라一身이죽지못호前은못니출가호노

壽夭長短니아던가죽은後1면거죽셔시天皇氏一萬  
八千歲도죽은後1면거죽셔시사라셔먹고노는거시괴  
조호가호노라

내집이김고김허니라셔차출손고四壁이蕭然호여一  
張琴硯이로다잇다감淸風明月만오락가락호더라

人心은넋고고여볼소록다르거늘世事는구름이라며  
흙도머흙이고無心호江湖白하나죽너러늘가호노라

落日은西山에져셔東海로다시나고마을에이은물은  
히다다프르거늘엇덧타오적스름은歸不歸를호는이

내게칼이잇셔壁上에걸렷신이새로우는소리무숨

일이不平호지쿠牛에龍光이밧헛신이스름알가호노  
라



글아셔업슬낏가南客이일려함으로三徙白圭호도다  
숨에넘을볼여버리우히지혀신이半壁殘燈에鶯衾도  
차도출사밤中만외기력이소리에잠못일워호노라  
어화造物이여고로도안이호자접이재나뵈재  
翠鶯鶯이다제씩이상갓거늘엇덧타어엇셜이내몸은  
獨宿空房호는이

佳人이落梅曲을月下에슬피분이櫟塵이날이는듯남  
은梅花다지거다버게도千金駿馬잇시니밧고와갈가  
호노라

人生이行樂이라富貴가能幾時오雍門琴호曲調에將  
進酒를젓거튼이座上에孟常君잇싯듬연눈물질가호  
노라

엇노라죽여말고못엇노라슬허마소엇은이憂患인줄  
못엇은이제알낏가世上에엇을이하紛々호니그를우  
어호노라

가마피적가마피비어되로쫓차온다昭陽殿날옛날에  
흐자덕옛시니스름은너만못흐줄을흐노슬허흐노라  
雲淡風輕近午天에小亭에술을짓고訪花隨柳하여前  
川을진가산이스름이알이업슨니흐자본들어터리  
昨日에一花開호고今日에一花開라今日에花正好여  
늘昨日에花已老！로다花已老人亦老하니안이늘고  
어이리

臨高臺臨高臺하야長安을굽어보니雲裡帝城은殘風  
闌이오雨中春樹는萬人家！리라암아도繁華民物이  
太平인가호노라

못노라부나뷔야비똥을내볼니라흐나뷔죽은後에도  
흐나뷔들아온이암아도푸새옛즘싱인들너죽을쓸모  
르는다

곳피면돌싱각호고돌북음면술싱각호고곳피자돌북  
자술어듬연벙싱각호니언제면곳아리벙다리고翫月



자피엿는 다 암아도傲霜高節은 닛별하노라

오려논물실어꼭코綿花밤디오리라울밋티외를셔고  
보리능거點心하소뒗집의밋즈술뉘엿거든外上남아  
가적오시

슬프다蜀漢時節皇天을怨하은이武侯功名十을年만  
빌렸듬연암을이열曹操잇신들제위라셔어이리

杜鵑아우지말아이지야내왔노라梨花도피여잇고새  
들도돛아잇다江山에白鷗이신이盟誓1프리홀이라  
淵明이歸去來辭짓고潯陽으로돌아갈지雲無心而出  
岫연을鳥倦飛而知還이로다암아도五柳清風을못밋  
출가하노라

사름이하는後에도언제점어불고싸진니다시나머웁  
벌이검을손가世上에不老草업손이그를슬허하노라  
皇天이不吊하니武鄉侯山들어이하리적웃던사듯등  
면漢室興復할는거슬至今히出師表를제면눈물

王升

드 이 두聖人은 못 밋출가흐노라

을 못내 슬허하노라

가  
암  
야  
드  
如  
此  
千  
一  
之  
會  
는  
못  
내  
볼  
어  
하  
느  
라

력이슬 피우고 落葉이 蕭々 흔뻐 인이 울이 업터라

蘅玄이赤松子를 좃치늘고范蠡<sub>正虫</sub>는五湖煙月에吳王의



天地開闢後에萬物이삼디난이山川草木禽獸昆  
蟲魚鱉之屬이오로다절노상것티라스름드富貴功名  
悲歡哀樂榮辱得失을付之절노호리라

景星出卿雲興호라陶唐氏억百姓이되야康衢烟月에  
舍哺鼓腹호여葛天氏억노래에軒轅氏억춤을춘이암  
아도三代以後는일언太古淳風을못어터불가호노라  
간밤의자고간그눔암아도못니즐다尾治눔의아들인  
지즌흠에썸버듯시드터취伶息인지국기뒤지듯시  
沙工의成伶인지沙禦씨질으듯시平生에처음이오凶  
症이도아르제라前後에나도무던이격것시되瘡盟誓  
간밤그눔은춤아못니출가호노라

누구시范亞父을智慧잇다닐으든그灞上에天子氣을  
分明이아랏건을鴻門宴高開時에風雲이擁護호야白  
日이震盪호라天意를바히물玉珎을세番들고項羽의  
拔劍起舞기더욱可笑1로다암으판玉斗를이치고項

發背<sup>하</sup>도록 뉘웃든 들어 이리

님으란淮陽金城오리남기되고나는三四月중너출이  
되야그남게그출이낙점의남의감듯일이르흔<sup>이</sup>절이  
로흔<sup>이</sup>외오프러을히감아업어저틀어저밋벗터긋<sup>마</sup>  
지조곰도윈틈업시흔<sup>이</sup>좁의남게휘<sup>이</sup>감겨晝夜長常  
뒤드러져감겨잇셔冬<sup>이</sup>들비름비는서리를암<sup>이</sup>만맛  
즌들설어질줄잇시라

又

漢高祖의謀臣猛將이제와<sup>하</sup>訖<sup>하</sup>면蕭何의給饋餉不  
絶糧道와張良의運籌帷幄과韓信的戰必勝功不取는  
三傑이라<sup>하</sup>흔연이와陳平의六出奇計안이런들白登에  
에운城을뉘라셔<sup>하</sup>루러범여項羽의范亞父를뉘라셔離  
間<sup>하</sup>흔<sup>이</sup>암아도金刀創業之功은四傑인가<sup>하</sup>느니라  
大丈夫一切成身退<sup>하</sup>야林泉에집을짓고萬卷書을싸

하두고종<sup>하</sup>여<sup>하</sup>밧갈이고<sup>하</sup>南羅<sup>하</sup>미<sup>하</sup>질들이고千金駿駒알  
의미고金樽에술을두고絶代佳人갸티두고碧梧桐김

은고<sup>하</sup>南風<sup>하</sup>清<sup>하</sup>고<sup>하</sup>月<sup>하</sup>明<sup>하</sup>고<sup>하</sup>水<sup>하</sup>平<sup>하</sup>고<sup>하</sup>山<sup>하</sup>色<sup>하</sup>好<sup>하</sup>고<sup>하</sup>花<sup>하</sup>香<sup>하</sup>고<sup>하</sup>鳥<sup>하</sup>鳴<sup>하</sup>고<sup>하</sup>人<sup>하</sup>樂<sup>하</sup>고<sup>하</sup>天<sup>하</sup>和<sup>하</sup>고<sup>하</sup>地<sup>하</sup>平<sup>하</sup>고<sup>하</sup>物<sup>하</sup>阜<sup>하</sup>고<sup>하</sup>民<sup>하</sup>康<sup>하</sup>고<sup>하</sup>國<sup>하</sup>祚<sup>하</sup>長<sup>하</sup>고<sup>하</sup>壽<sup>하</sup>考<sup>하</sup>長<sup>하</sup>고<sup>하</sup>子<sup>하</sup>孫<sup>하</sup>萬<sup>하</sup>世<sup>하</sup>享<sup>하</sup>고<sup>하</sup>天<sup>하</sup>之<sup>하</sup>福<sup>하</sup>고<sup>하</sup>地<sup>하</sup>之<sup>하</sup>祿<sup>하</sup>고<sup>하</sup>人<sup>하</sup>之<sup>하</sup>壽<sup>하</sup>고<sup>하</sup>國<sup>하</sup>之<sup>하</sup>祚<sup>하</sup>고<sup>하</sup>天<sup>하</sup>之<sup>하</sup>福<sup>하</sup>고<sup>하</sup>地<sup>하</sup>之<sup>하</sup>祿<sup>하</sup>고<sup>하</sup>人<sup>하</sup>之<sup>하</sup>壽<sup>하</sup>고<sup>하</sup>國<sup>하</sup>之<sup>하</sup>祚<sup>하</sup>



三代後漢唐宋에 忠臣義士 허여보 夷齊의 孤竹淸風  
과 龍逢比干 忠은 날으도 말연이와 魯連의 蹈海高風과  
朱雲의 折檻直氣와 晉處士의 柴桑日月에 不放飛花過  
石頭와 南齊雲의 不爲不義屈과 岳武穆의 涅背精忠은  
千秋竹帛上에 旣안이 景仰할고 암아도 我東三百年에  
顯忠崇節하사 堂三學士의 萬古大義는 絜업은가  
하노라

증금이점은 사당년을어더의父母의孝道에피무엇을  
하야갈고 松杞씩갈 松편과더덕片 脯芋椒佐飯되호르  
치들아식엄취라삼쥬고사리그런뉘뉘를과들맛트르  
나리들아곰들리라를속게유목뫼다지라슴박위잔다  
과라고들씩이두로지야바랑씩게너허가지무어슬르  
고갈고어화雜말호다암쇼등에언치노화새샷갓도시  
長衫꽃갈에念珠밧쳐어을르고가리다

△人生天地百年間에 富貴功名捻浮雲을쳐하리다별다

고龍門에壯遊하야齊州九點烟에山河元氣와洞庭湖  
雲夢澤을宵襟에삼인後에落鴈峯에天淸을나謝眺의  
驚人句를青天에浪吟하고張騫의八月槎를銀河에흘  
이그하月宮에올나가侍王妃를만나보고그귀야蓬萊  
山에安期生羨門子와長年度世術을슬기장議論하니  
世上에醉死夢生하야鶻之輩야닐리무슴하리

生되又튼저閻氏님님의肝腸그만웃소돈을줄야銀을  
줄야大緞침아鄉織唐衣沆羅속엇白綾헐잇디구름又  
人은北道드래玉빈허竹鄴빈허銀粧刀1라金珮조로金  
粧刀1라蜜花조로江南셔나오신珊瑚柯枝자기天桃  
靑麝박은純金가락지石雄黃真珠당히繡草鞋를줄야  
저님아一萬兩이섬살이라웃又튼寶五개에웃는듯잉  
기는듯千金一約을暫間許諾하리라

물우희沙工물아리沙工놈들아三四月田稅大同살나

살나一子石匠은木重匠을가니十月十日이후에



之神과南海龍王之神이손은安초와安祀할지全羅道  
라慶尚道라蔚山바다羅州바다七山바다휘돌아安  
興목이라孫厓목江華人목감돌아들지平盤에물담듯  
시萬里滄波에가는듯돌아오게고스레고스레事望일  
게하옵쇼셔어라어라적어어어라비석여라로窻  
慈南無阿彌拖佛

一身이시자하니물엿겨워못견딜피人겨곳튼가량  
니보리알곳튼슈동니줄인니곳인니조별록글근별록  
강별록倭별록귀는금쉬금琵琶곳튼빈대삿기使令  
곳튼등에하비갈싸귀삼의약이썬박회를온박회바금  
이거거리불이썬족훈목의달이기다훈목의아원목의  
심진목의그림어썬록이晝夜로빈녀업시물건이소건  
이설건이뜻건이甚훈唐발니예석어려왜라그中에손  
아못견딜슨五六月伏더위에쉬프린가하노라

金天澤

亭伯涵號南坡

甫廟朝名歌

웃버서 하히 주어 슬 집의 불모고青天을 울어려 들드  
려 무른 말이 어 좁어千古李白이 날과 엇더하든노

이 蠶 絜 으 시 고 이 내 말 곳 처 들 어 一樽酒 곳 처 갈 지 니 을  
일 만 今 別 하 시 이 밧 그 是非憂樂을 나느 몰 나 하 그 라

하 번 죽 은 後 一 면 언 의 날 에 다 시 오 며 深山 긴 솔 아 리 제  
니 라 초 조 와 셔 술 북 어 저 잡 고 날 勸 하 며 느 시 하 리 잇 시  
리

내 부 위 勸 하 는 蠶 을 털 먹 으 려 辭讓 마 소 花 開 鶯 啼 하 이  
이 아 니 조 혼 셤 가 어 좁 어 明年 看 花 伴 이 늘 과 될 줄 알 이

오

어 화 世 上 스 림 이 내 말 드 러 보 소 青春 이 每 樣 이 며 白 髮  
이 겹 는 것 가 淸 苦 든 人 世 을 가 지 고 一 葉 시 살 아 하 는 이  
人 生 을 허 여 하 니 아 마 도 어 러 웨 라 逆 旅 光 陰 에 시 림 이  
半 이 로 다 무 스 일 이 조 혼 聖 世 에 아 니 클 고 어 이 리

三萬六千日을 每 樣 만 닉 이 지 마 소 夢 裡 青春 이 어 느 듯

지 난 으 니 두 어 라 四時風景이 齊 고 들 이 커 이



浮生이 꿈이여늘功名이 어란가 賢愚貴賤이 죽은후  
면다 훈가지 암아도사라 훈을 이즐어온가 하노라  
功名이 괴무엇고辱된알만훈이라 三盃酒一曲琴으로  
事業을삼아두고이조흔太平烟月에이리저리하오이  
라

朱門에벗넘쳐야高車駟馬줄타마소득기죽은후면  
모조심기는이우리는榮辱을모르니이득려온일업새  
라

知足이면不辱이요知止면不殆라하니 功成名立하면  
만은것시괴올흔이어좁어宦海諸君子는모다操心하  
시소

綠駟霜蹄檻上에셔늬고龍泉雪鏐匣裡에운다平生에  
먹은뜻은속절업시못알우고곳득에못슬민白髮은줄  
차어이비안다

書劔을못알우고쓸떡업는몸이되야五十春光을히옴  
업시지내연적두어라언의곳靑山이야날날출이잇시

라

初生에 잇즌 돌도 보름에는 돌엿거든 盈虛 否泰는 天道  
自然을 어컨이 두어라 無往不復인 이기 들 일기 하느라  
人間의 일이 命 밧고 삼것시 리 吉凶禍福은 하늘에 붙  
쳐 두고 그 밧고 년남은 일을 란 되는 때로 하느라

榮辱은 關數호고 富貴는 在天호니 求하 다 절에 옴여 더  
적 두 다 엿의 가라 眞實로 버길 을 닥가 두면 自然 有時호  
는 이

古今에 어질기야 孔夫子 만 할가 만은 轍環天下호여 木  
鐸이 되엿신 이 날 갓튼 석은 선비야 날러 무심 헐이 오

安貧을 슬히 닉여 손헤 다 물러 감며 富貴을 불어 하여 손  
치 다 나 아 오라 아 마도 貧이 無怨이 기 올흔가 하느라  
잘가느라 못지 말며 못가느라 쉬지 말라 브디 곳지 말고  
寸陰을 앗겨슬 아가다가 中止호면 안이 갈만 못하느라

孔孟과 楊墨과 스이 方寸인 듯 하거만은 다 좋것은 것



楚越이 되었는 이 眞實로 이즈음 생각하야 부디 攄心하

시소

青藜杖 힘을 삼고 南畝로 나려 간 이 稻花는 날이고 小川  
魚슬 젖는 디 遠近에 읊이는 農歌는 곳 이 셔들 린다

엇그제 텨 밍술을 질 동희에 그득 붓고 설레 친 무음음을  
淸菊醬잇쳐 번이 世上에 肉食者들이 이 맛슬 어이 알이

오

箕山에 늙은 스름 귀는 어이 싯듯든 그 박소리 핑계하고  
操壯이 늙건이 와至今히 潁水淸波는 더러온 재잇는 이  
尼山에 降彩하샤 大聖人을 내오신 이 緇洗聖開來學에  
德業도 늙흐실 샤아 마도 羣聖中 集大成은夫子 1 신가  
하노라

過人慾存天理는 泰山의 氣像이오 知言養氣는 古今에  
괴뉘신고 암아도 擴前聖所藪은夫子 신가하노라  
杜拾遺의 忠君愛國이 日月로 爭光하노다 間關剗關에  
뜻돌리련혀 업서어 좁어 無限丹衷을一部詩에 붓시도

다

岳鵬舉의一生肝膽이석지안일忠孝1로다背涅四字  
는무어시라하엿션고南枝上一片宋日이耿々丹裏에  
빛이엇다

北扉下점은날에々엇블은文天祥이여八年燕霜에감  
든말이다희거다至今히從容就死를못내슬허허느라  
어화왕昭君이여싱각언대可憐홀야漢宮粧胡地妾에  
薄命홀도期止업다至今히死留青塚을못내슬허허느  
라

王河關저문날에々엇블은三學士여忠魂義魄이어들  
어로간거이끄암아도萬古綱常을네붓든가하느라

天地翻覆홀이日月이無光이로다黃極殿급흔집의느

軍子1안단말가어좁어一部春秋을읽을못이업새라

昏飲不省키는養性홀이아나연이衆人이醉하여도너

어이홀근석리암아도與世推移홀이괴을흔가하느라

紅塵이떨어진이世上일을어이알이고胡勝也기一魚



翁이 되어 잊셔平生을滄波에 담고  
라

이 면다 시 먹고醉호여 누엇시니世上榮辱이엇덧든동  
나물나라平生을醉裡乾坤에 설날 업시 먹으리라

農人은告余而春反호니西疇에일이하다漠漠水田을  
뒤라셔득미야줄이암아도躬耕稼穡이내分인가호노  
라

○ 업시큰千里馬를아라불이뒤이시리十年櫪上에俗節  
업시다늑거다어디셔슬진외양마는오용지용호는이  
人心은惟危호고道心은惟微호야漢唐宋千百年來에  
鷄犬又치터적두고至今히차즐히업손이그를슬허호  
노라

春窓에늦이날어緩步호여나가보니洞門流水에落花  
마득셔잇셔라적곳아仙源을남알씨라셔나가지말외  
라

흰구름푸른너는물々이좁것는디秋風에물든丹楓 붉

못도 못더 조해라 天公이 날을 위하야 뭇빛을 삼키니

을 밤치 긴적의 남성각이 더옥 깊다 막귀성 관비에 남  
다 腸 다 석늘애 암아도 薄命 人生은 버하진 가하느

라 權然後에 知輕重하고 度然後에 知長短이니 萬物은 오  
히려다 그러하건이 와 암아도 심할손마음이니 복되상  
가하리라

父 考 生 我 하시고 母 方 鞠 我 하신이 父母의 恩德은 昊天  
罔極이옵언이 眞實로 白骨이 糜粉인들 此生에 어이 갑  
다 올이

어 화우리 님 금疾病이 업스신가 濟々 羣生이 啣임이 남  
앗다 蒼生이 戴已을 願하니 太平인가 하느라

金君伯涵以善唱鳴國中一洗下里之陋而能自為

新聲瀏亮可聽又製新曲數十闕以傳於世少年習

而唱之余觀其詞皆麗致音調都空清獨高下自



汴於律可與松江之新韻後先方駕並備濁非特能  
於歌亦見其聽於文也嗚呼使今之世有善觀風者  
必乎是詞而列於樂官用之鄉人用之邦國不但里  
巷歌謠而止耳奈何徒使伯涵為燕趙悲慨之音以  
鳴其不平也且是歌也多引江湖山林放浪隱遯之  
語反覆嗟歎之不已其亦衰世之意歟玄窩鄭潤卿  
書于丙寅花柳之節

伯涵所製歌曲其最多或有所貴者或有所賤者  
吾既修正作譜以傳於後則查滓極真必使識者  
開眼終至道直然後乃可以立其名語之真實淳  
原清廉孝忠抹之輕忽不重脉絡絕間者去之後  
之全篇考之者獵略首末幸勿訝惑焉歲庚辰蒼  
龍杜鵑矜艷杏花隱香之節白翁頭老歌齋金壽  
長書

金壽長

字子平號老歌齋

甫廟朝人

無愁翁은 기린런고하늘다님지런가언지언의대어

드러셔난거이끄처음도나홍도모른이無極일씨올로  
다

나니나든날에天地를처음보와하늘은급호시끄따이

크시들아生前에급크큰德을니즐낚이잇시라

父母날나흐신이恩惠밧기로다母方날길으신이德밧  
기德이로다아마도하늘곳은이恩德을어티다허갑스  
올크

父母사라신제愁心을외지말며樂其心養其饑하야百  
歲를지번後에못참내擇地安葬이키을흔가하노라  
清晨에일날어셔말이밧고洗手하고衣冠을조히하  
고養親堂에외온後에드라와卷讀終日이알음다온일이  
라

이몸상긴後에聖代을만나오니堯天日月이大東에  
빛

앗비라雨露에德澤이넘으샤못내죽여하노라

書史를못끄들어義理를일치말며生産作業하야蒸嘗  
을곳치말아이밧기監호듯은관刑되여하노라





하노라

孝弟로 비를 무위忠信으로 뜻을 다라 顏淵子魯로 槽주

위 子고 우리도 孔夫子 되옵고 學海에 글이라

로 忠信으로 옷슬 지어 禮義廉恥로 신삼

나 암으리千百歲 지난들히여 질쉴잇시라

가 산後니 道德이어득 왜라 滄海에 비를튼

출이 누이시리 白鵲아 閒暇키 날又든이 네날갈

하노라

天地는 父母여다 萬物은 妻子로다 江山은 兄弟여

늘 風月은 朋友로다 이등에 忠臣大義야니 존적이잇

시라

뒷집는 土階三等이우지는 構木爲巢衣草衣食木實에

사름이다엇이던이엇덧타 肉食大厦에 용치말려하느

이

花開洞北麓下에 草菴을 엮엇시니 바람비는서리는글

령려령지어여도언의제드스흔히잇기야되라 불꽃이



시라

草菴이寂寞하되 벗업시 혼자 안자平調한넙히白雲이  
걸노든다언의뉘이조흔뜻을알이잇다하리오

景會樓萬株松이눈알피벌어잇고寅王鞍峴은翠屏이  
되엇는되夕陽에翩翩白鷺는오락가락하노매라  
蝸室은不足하나十景이버러잇고四壁畵는主人翁  
의心事로다이밧긔군음업시니는나분인가하노  
라







